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염재일*†

홍익대학교

Jae-Il Yeom. 2005.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Modalities of ‘-keyss’ and ‘-(u)l ke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9.2, 1-22. In this paper I propose the semantics of two modality markers in Korean, *keyss* and *(u)l kes*. I compare the two modality markers with respect to some properties. First, *keyss* is used to express logical necessity while *(u)l kes* can be used to express a simple prediction as well. Second, *keyss* expresses some logical conclusion from the speaker’s own information state without claiming it is true. On the other hand, *(u)l kes* expresses the claim that the speaker’s prediction will be true. Third, the prediction of *keyss* is non-monotonic: it can be reversed without being inconsistent. However, that of *(u)l kes* cannot. Fourth, *(u)l kes* can be used freely in epistemic conditionals, but *keyss* cannot. Finally, when *keyss* is used, the prediction cannot be repeated. The prediction from the use of *(u)l kes* can be repeated. To account for these differences, I propose that *keyss* is used when the speaker makes a purely logical presumption based on his/her own information state, and that *(u)l kes* is used to make a prediction which is asserted to be true. This proposal accounts for all the differences of the two modality markers. (Hongik University)

Key words: 순수추론, 추정(presumption), 양태(modality), 논리적 추론(logical presumption), 단순추측(simple prediction), 언어행위(speech act)

1. 서론

우리말의 선어말 어미 ‘-겠’의 쓰임새에 대하여 최현배(1937), 남기심(1972)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의미들의 예를 보이고 있다.

* 121-791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영어영문과, E-mail: jiyjeom@hongik.ac.kr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전 미완성논문이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년 여름학술대회와 2005년 한국언어학회·현대문법학회 가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본 논문의 완성에 도움이 된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또한, 본 논문의 많은 오류를 고칠 수 있게 도와준 세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한 심사위원은 일부의 문장에 대한 판단이 저자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 일부만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진 것들이라든지, 본 논문에서 의도하지 않는 다른 요소가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다루지 않았다.

- (1) a. 너는 참 좋겠다. (추정)
 b. 나는 기어이 거기에 가겠다. (의도)
 c.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능력/가능)

이중에서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추정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좁은 의미의 추정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서정수(1978)는 ‘(으)ㄹ 것’의 용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

- (2) a. 이 사과는 내가 먹을 것이다. (미연의 사물)
 b. 그는 내일 떠날 것이다. (추정)
 c. 나는 기어이 거기에 갈 것이다. (의도)
 d. 이 규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령)
 e.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 (풀이기능: 먹을 것=식량)

본 논문에서는 두 양태소가 공통으로 보이는 추정의 의미에 한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추정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간접적인 증거 등을 사용하여 추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3) ??나는 지금 배가 고프{ㄹ 것이/겠}다.

(4) 너는/철수는 지금 배가 고프{ㄹ 것이/겠}다.

화자는 자신의 느낌을 알고 있으므로 (3)에서 처럼 추측하는 식의 말은 어색하다. 그러나 화자 이외의 사람의 느낌은 화자가 추측을 해야 하므로 (4)의 문장들은 자연스럽다.

두 양태소 모두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둘의 쓰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장에서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결론에 이른 주장을 몇 가지 살펴보고, 3장에서는 두 양태소가 보이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4장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포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제안하고, 관찰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5장에서는 이전의 상반된 연구들이 어떤 점에서 틀릴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6장에서 간단히 논의를 정리한다.

¹ ‘겠’은 한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지만, ‘(으)ㄹ 것’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으)ㄹ 것’을 양태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으)ㄹ 것’ 뒤에 다른 형태소가 와도 양태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으)ㄹ 것’을 양태소로 본다. 물론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추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항상 ‘이’가 뒤따르지만, 서정수(1978)에서 처럼, 이것은 ‘(으)ㄹ 것’의 한 용법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은 형태소적 구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두 양태소와 관련된 자세한 형태소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김차균(1981)에서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다.

2. 이전의 연구

두 양태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두 양태소의 의미적 차이가 얼마나 미묘한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 두 양태소는 아주 다양한 면에서 비교가 되어 어떤 특징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결론에 이르는 주장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이기용(1978)에 의하면 인식논리와 회화규칙에 의거하여 회화에서는 추정(짐작)문은 가능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겠’과 ‘-(으)ㄹ 것’을 모두 추정양태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강도의 차이로 보고, 이것을 함께 쓰일 수 있는 부사어를 통하여 보이고자 했다. ‘-(으)ㄹ 것’은 ‘꼭’과 ‘아마’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강한 추정과 약한 추정 모두에 쓰이지만, ‘-겠’은 ‘꼭’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 강한 추정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²

(5) a. 그는 꼭 지옥에 가겠다.

b. 그는 꼭 지옥에 갈 것이다.

(6) a.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일 것이다.

b. *?아마 방 선생은 총각이겠다.

c. 잘 모르지만 잠수교가 물에 잠겼{??겠/을 것이}다.

‘꼭’은 두 양태소 모두와 어울리지만, ‘아마’는 ‘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겠’은 항상 강한 추정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이정민(1973)은 오히려 ‘-(으)ㄹ 것’이 화자의 강한 내적 추측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정수(1978) 역시 다소 다른 이유에서 ‘-(으)ㄹ 것’이 ‘겠’보다 더 확실한 추정이라고 주장한다. 서정수(1978)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겠’은 주관적 추정을, ‘-(으)ㄹ 것’은 객관적 추정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7) a.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겠/?ㄹ 것이}다

b. 일정표에 따르면 그이가 내일 떠나{?겠/ㄹ 것이}다.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하는 추정에는 ‘겠’이, 일정표와 같은 객관적인 것에 바탕을 둔 추정에는 ‘-(으)ㄹ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인 것이 더 확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² ‘-겠’이 화자의 의지를 뜻하는 것도 그것이 화자의 확신을 함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주장하는 데는 ‘-(으)ㄹ 것’이 추정에만 쓰인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8) 난 죽{겠/을 것이}다.

이 예에서 ‘겠’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화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으)ㄹ 것’을 사용하는 경우 화자가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으)ㄹ 것’이 더 객관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어 더 확실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쉽게 반례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9) a. (상자에 흰 돌1개와 검은 돌 1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검은 돌이 나오면 흰 돌이 남겠다.

b. (주사위를 던지면서) 6이 나올 거야.

상자에 흰 돌이 1개, 검은 돌이 1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9a)에서처럼 객관적인 판단에 ‘-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9b)에서는 객관적으로 주사위의 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1/6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주어졌지만, 화자가 추정하는 것에는 아무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데 ‘-(으)ㄹ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겠’이 주관적이라든지 ‘(으)ㄹ 것’이 객관적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관/객관의 대립이라든지, 강/약의 대비로 ‘겠’과 ‘(으)ㄹ 것’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둘 중의 한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논의를 통해 더 분명해지는 것은 두 양태소의 의미적 차이가 주관/객관, 혹은 강/약의 구분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뒤에서 논할 것이다.

또 다른 상반된 주장의 예를 보자. 고창운(1991)은 자기 자신의 주장에 앞서, (i) 모든 추정에 근거가 있고, (ii) 추정근거는 화자가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두 양태소는 화자가 추정의 근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겠’은 화자 자신이 갖고 있는 추정근거를 청자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는 추정에 사용하고, ‘(으)ㄹ 것’은 화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정 근거를 청자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는 추정에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0) A: 개 언니가 작년 미스코리아야.

B: 그러면, 개 언니는 참 예쁘{졌다/??ㄹ 거야}.

이 대화에서 B의 발화의 추정근거는 우선 (i) 언니가 미스코리아라는 것이고, 또한 (ii) 미스코리아는 예쁘다는 일반적인 총칭문 명제에 근거하고 있는데, 화자 B는 두 명제 모두 청자나 화자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으)ㄹ 것’은 화자가 청자는 추정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다음의 예들을 비교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였다.

- (11) a. A: 10시가 지난 것 보니, 오늘 순이는 안 오겠다.
 B: 그렇게 말이야. 막차 도착시간이 벌써 지났잖아?
- b. A: 10시가 지난 것 보니, 오늘 순이는 안 올 거야.
 B: 왜?
 A: 막차 도착시간이 10시거든.

(11a)에서 A가 ‘겠’을 사용할 때에는, 청자 B도 같은 추정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B가 이 추측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잘 어울리며, ‘(으)ㄹ 것’은 (11b)에서처럼 청자는 같은 추정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B가 그 추정의 근거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이 주장은 용법의 차이만을 지적하고 있지 의미적 차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두 양태소의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때문에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생기는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주장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즉, 화자만 있고 청자가 없는 경우, 화자가 독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화자는 청자와의 추정의 근거에 대한 공유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두 양태소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다음의 일기 예보 상황에서의 발화를 보자.

- (12) 내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지만 오후에는 개이겠습니다.

‘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기 예보하는 사람이 추정의 근거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추정 근거로부터 추정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화자만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경우에도 ‘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다른 반례를 보자.

- (13) 나는 네가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지?).

- (14) 영희가 온다면 철수도 오고 싶을 거야, 그지?

우리말에서 ‘그지?’는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는 구어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면, 청자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첫 예에서 ‘겠’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자가 추정 근거를 공유하고 같은 추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동조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어색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둘째 예에서 ‘(으)

ㄹ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자도 추정의 근거를 가지고 같은 추정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동조를 촉구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발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예들은 고창운(1991)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예들이다.

고창운(1991)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는 서정수(1978)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수(1978)에서 주관적이라고 한 '-겠'이 고창운(1991)에서는 오히려 화자가 청자와 추정의 근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서정수(1978)에서 객관적이라고 한 '-(으)ㄹ 것'은 추정의 근거를 화자만 가지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고창운(1991)에서는 오히려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고창운(1991)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남순(1981, 1998)을 들 수 있다. 이남순(1981, 1998)은 서술문에서 '-겠'은 화자의 배타적 판단을 나타내며 '-(으)ㄹ 것'은 청자나 제3자의 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판단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³ 이남순은 이것을 주관적/객관적인 차이와는 구분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추정하는 판단은 항상 주관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단지, 그 주관적인 판단이 청자나 제3자의 판단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는가에 따라 '겠'과 '-(으)ㄹ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창운(1991)의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남순(1998)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15) (선생님이) 가셨{겠/??을 거}다. 빨리 뛰자.

이 예에서, 화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두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 그럴 가능성을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추론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서둘러 보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6)과 (17)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16)에서 듣는이에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화자나 제3자의 판단도 포함하게 되므로 '-(으)ㄹ 것'이 어울리고 (17)에서는 술어의 내용이 화자 자신만의 판단이므로 '겠'이 어울린다는 것이다.

(16) a.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b.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17) a. (나는) 모르{겠/??ㄹ 것이}다.

³ 이남순(1981, 1998)에 의하면, 의문문에서는 서술문과는 달리 '-겠'이 청자의 배타적인 판단을 묻는다.

(i) 그가 옳{겠/??을 것이}냐?

(ii) {??내가/네가/??잘수가} 생각하기에 그가 옳겠냐?

예 (i)에서 화자는 청자의 배타적인 판단을 묻고 있으므로 '겠'이 자연스럽고, '-(으)ㄹ 것'은 포괄적인 판단을 묻는 것은 화자 자신의 판단도 포함된다고 할 때 화자 자신의 판단을 청자를 통하여 묻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ii)에서는 '겠'을 의문문에 사용할 경우 청자의 생각을 물을 경우에만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 나는 좋아 죽{겠/??을 것이}다.

이남순(1998)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례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18) (너는 부정하겠지만) 너는 참 {??괴롭겠다/괴로울 거야}.

(19) (애인과 헤어졌으니) 철수가 괴로울 거야/괴롭겠다.

(20) 너는 그곳에서 (내가 미리 연락해 놓은)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야.

첫째 예는 청자의 공유부분을 배제한 것인데, ‘-겠’보다는 ‘-(으)ㄹ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겠’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고창운(1991)이 주장하듯이, 청자와 판단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예에서는 모두 청자와 공감하면서 나누는 대화라고 가정해도 ‘-겠’과 ‘-(으)ㄹ 것’이 모두 문제가 없다. 세번째 예는 화자가 미리 연락해 놓았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만의 어떤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ㄹ 것’이 어울린다. 오히려 ‘-겠’을 사용하면 어색하다. 이러한 반례들을 볼 때 배타적/포괄적이라는 구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리고, 고창운(1991)과 마찬가지로, 화자/청자 혹은 제3자와의 공유문제는 화용적인 것으로 두 양태소의 의미적 차이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추론은 항상 발화자 자신만이 하며,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는가는 상황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경우 공유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양태소에 대하여 몇 가지 연구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 고찰에서 보여지듯이,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양태소가 얼마나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두 양태소의 다양한 특징들로부터 근본적인 의미적 차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양태소의 연구가 기존의 확립된 개념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직관에만 의존하여 차이를 규명하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양태와 관련된 개념에 입각하여 두 양태소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핀 후 그 특징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적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두 양태소의 특징

3.1 단순추측 vs. 논리적 필연

Kratzer(1977,1981)에 의하면, 양태기저(modal base)가 무엇인가에 따라 양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태를 양태기저에 따라 인식적 양태와 형이상학적 양태로 구분한다. 전자는 세상의 일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양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사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양태를 단순히 이 두 가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두 양태소를 비교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양태소의 몇 가지 논리적 양상을 보기로 하자.

앞의 예에서 가정하였듯이, 만약 상자 속에 검은 돌 1개와 흰 돌 1개가 있고, 상자에서 돌 한 개를 꺼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고 가정하자.

(21) 다음에 나오는 돌은 검은 돌{일 거야/??이겠다}.

(22) 다음에 검은 돌이 나오면, 상자에 남는 돌은 흰 돌이{?ㄹ 것이/겠}다.⁴

(21)에서 ‘(으)ㄹ 것’은 어울리지만, ‘겠’은 어색하다. 반면에 (22)에서는 오히려 ‘겠’이 어울린다. ‘(으)ㄹ 것’을 사용할 경우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경우에 ‘(으)ㄹ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일부의 경우에 ‘겠’은 상대방과 추정의 근거를 공유하는 경우에 쓰이는 경향이 있고 ‘(으)ㄹ 것’은 화자만이 추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고창운(1991)의 관찰이 확인되는 것 같다. 그러나 위 두 발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둘째 문장은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문장은 논리성이 없이 단순히 우연적인 것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자속에 흰 돌과 검은 돌의 비율이 99:1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고 가정하자.

(23) 다음에 나오는 돌은 (아마) 흰 돌이{ㄹ 것이/??겠}다.

확률적으로 보면 흰 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서 꺼내는 돌이 흰 돌일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겠’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두 예를 보면 충분한 근거가 없이 단순추측을 하는 경우 ‘-(으)ㄹ 것’이 사용되고 ‘겠’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겠’은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을 때에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3.2 순수추론 vs. 사실추론

‘겠’이 필연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지만, 그 추론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논의하고 이어서 다른 한 가지를 논의하겠다. 다음의 예는 이남순(1981,1998) 등에서 논의된 예문이다.

(24) 늦{??을 것이/겠}다. 서둘러라.

⁴ 한 심사위원은 이 두 문장이 다소 어색하며 오히려 단정적으로 ‘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돌을 꺼내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식적 양태소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엄밀하게 말하려는 것으로 돌려 특별히 엄밀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태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겠’이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겠’은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추정을 하되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정보)상태에서의 필연적인 결론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제한된 정보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그 결론이 틀린 것이 되더라도 제한된 정보 하에서 논리에 문제가 없으면 화자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에서 논리적으로는 늦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늦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좀더 서두르면 그 추론과는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에, ‘-(으)ㄴ 것’은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이 추론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화자의 추론의 잘못으로 간주되고 화자가 그 잘못에 책임이 생길 것이다. 위 예에서 ‘(으)ㄴ 것’이 어색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경우 정말로 세상이 그럴 것이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되며,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서두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겠’이 순수추론에 쓰이기 때문에 반사실적인 추론에도 쉽게 사용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25) 해가 서쪽에서 뜨{??ㄴ 것이/-겠}다.

이 문장을 발화시 화자는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아주 믿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 경우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다고 추론하는 것일 뿐이다. 대개의 경우 ‘-겠’을 사용하여 추론하는 경우 그 배경에는 그 추론을 뒷받침하는 조건문 형태의 명제가 있다. 그리고 조건문 중에 화자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이 짝을 이루는 조건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Jasmin이 혼자 성을 빠져나가 시장에서 한 상인에게 ‘나는 공주다’라고 말을 하면, 이를 믿지 않는 상인이 ‘네가 공주면, 나는 왕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둘을 연결하여 후행절이 거짓이므로 선행절도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발화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믿기지 않는 일과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모두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될 경우 이 둘을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으)ㄴ 것’은 순수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추론의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참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발화에서는 ‘(으)ㄴ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겠’은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강한 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약화되고, ‘(으)ㄴ 것’은 논리적 필연성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장을 하면 계속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논의되는 단조성/비단조성과 관련이 있다.

3.3 단조성 vs. 비단조성

‘겠’을 약하게 하는 요소는 ‘겠’의 경우 정보의 문제이므로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비단조성(non-monotonicity)라고 하는데, ‘(으)ㄹ 것’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한번 어떠한 것이라고 추론을 하면 그 결론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 추론을 반복한다면, 항상 화자가 잘못 추론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보자.

- (26) A: 영희가 미인 대회에 참가했어.
 B: 그러면 예쁘겠다.
 A: 근데, 팔씨름대회인줄 알고 참가했어.
 B: 그러면 안 예쁘겠다.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즉 A가 더 많은 정보를 줌에 따라서 B가 이전의 추론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반복에 대하여 B가 모순에 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으)ㄹ 것’은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27) A: 영희가 미인대회에 참가했어.
 B: 그러면 미인일 거야.
 A: 근데, 팔씨름대회인줄 알고 참가했어.
 B: 그럼 안 예쁠 거야.

‘(으)ㄹ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부족한 정보에 의한 추론이라도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추측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앞의 순수추론과 사실추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순수추론의 경우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같은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겠’은 비단조성을, ‘(으)ㄹ 것’은 단조성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겠’만이 정보에 의존하므로 이것만 인식적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점을 살피기 위하여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 두 양태소가 쓰이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4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

조건문에서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태가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태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 양태의 조건문의 용법이고, 선행절이 후행절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의 용법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겠’은 현재의 정보상태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인식적 양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는 ‘(으)ㄹ 것’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겠’은 일

부의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만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⁵

- (28) a. 철수가 영희의 논문을 도와줬다면, 둘은 사랑하는 사이이{ㄹ거야/??겠다}.
- b. 만약 길이 젖었다면, 어제 밤에 비가 왔{을 것이/??겠}다.
- c. 만약 그녀가 이긴다면, 그녀가 몰래 연습을 했{을 것이/??겠}다.

첫 예에서 철수가 영희 논문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원인이 아니라 후자의 결론을 내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의 일반적 인 유형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으)ㄹ 것’이 사용되며, ‘겠’은 어색하다. 다른 두 예 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⁶ 이것은 ‘겠’이 인식적 양태를 나타낸다고 할 때, 매우 뜻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겠’이 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선행절이 오히려 후행절의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순서가 오히려 뒤바뀌어 있으므로 ‘겠’이 후행절에 올 경우 후행절이 선행절의 논리적 결과가 아니므로 논리적 필연성의 관계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문장이 어색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으)ㄹ 것’이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 사용된다면, 인식적 양태의 ‘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식적 양태는 세상의 일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정보상태에서 세상의 일을 추론하는 것이다. ‘(으)ㄹ 것’은 인식적 양태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인식적 양태의 전형적인 경우, 즉, 세상에 대한 추론을 하는 데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겠’은 현재의 정보상태에서 필연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할 뿐, 세상이 그 결론과 같아야 한다든지, 같지 않을 수 있다든지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으)ㄹ 것’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5 새 추정 vs. 현 추정

‘겠’과 ‘(으)ㄹ 것’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으)ㄹ 것’은 추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주장할 수 있지만, ‘겠’은 발화시에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⁵ 다음 예문들에 대하여 한 심사자는 앞에 선행절이 없는 경우에도 어색하다고 하였는데, 다음의 예문들을 보면 선행절이 어떠한지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선행절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후행절만 있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i. 둘이 오랫동안 팀으로 일 했다면, 둘은 사랑하는 사이이겠다.
- ii. 어제 낮에 강수유도제를 살포했으면, 어제 밤에 비가 왔겠다.

이것은 아래 예문들이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때문에 어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⁶ 일부의 인식적 조건문에 ‘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가 그런 경우이다.

- (1) a.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철수가 집에 있을 거야.
- b.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철수가 집에 있겠다.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자. 철수가 친구 A와 친구 B와 얘기를 나누는데, 잠시 B가 전화를 받느라 철수와 친구 A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미 오간 대화의 내용을 반복한다고 가정하자.

(29) 친구 A: 영희가 애인과 헤어졌다.

철수: 영희가 괴롭겠다.

...

친구 B: 영희가 애인과 헤어졌다.

철수: 영희가 매우 {??괴롭겠다/괴로울 거야}.

이미 철수는 영희가 괴로울 것이라고 추정하는 발화를 하였기 때문에 추정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추정하는 추정의 행위는 반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겠’을 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지 이미 추정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미 전에 추정된 것을 말하는 데는 ‘(으)ㄹ 것’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으)ㄹ 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사하게, 철수가 ‘영희가 괴롭겠다’고 말했을 때, 친구 A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수는 ‘아냐, 영희가 괴로울 거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냐, 영희가 괴롭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의 예에서 철수의 첫번째 발화에서 만약 ‘괴로울 거야’라고 말하면, 이미 애인과 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추정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추론하는 경우가 구분되어야 한다.

(30) A: 모든 새는 난다. 제비도 새다. 그러므로 제비도 날{??겠/을 것이}다.

(31) A: 모든 새는 난다.

B: 제비도 새다.

A: 그러면, 제비도 날{겠/ㄹ 것이}다.

첫째 예에서는 모든 명제를 한 화자가 발화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추정의 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어지는 추정은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두번째 예를 보면 A의 추정은 B의 발화 뒤에 이어지는데 이것은 A가 B가 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러면’이라는 접속사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 A는 새로운 정보에 입각하여 추론을 하게 되므로, 그 추론은 지금 처음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들을 통하여 ‘겠’과 ‘(으)ㄹ 것’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32) ‘-(으)ㄹ 것’은 모든 추정에 쓰이고, ‘겠’은 말할 당시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정으로 부터의 추정의 경우에만 쓰인다.

이것은 앞에서 주장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전에 추정이 이루어진 것은 새삼 다시 추정의 형식을 빌어서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려면 단순히 추정을 다시 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다. 즉, 그 추정이 계속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세상이 추정과 같다는 주장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명제 혹은 가정에 입각하여 새로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세상이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단지 새로운 명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일 경우 현재의 정보상태에서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지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으)ㄹ 것’은 세상이 추정과 같아야 한다는 것까지 주장하는 데 쓰이지만, ‘겠’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추정을 할 뿐,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주장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놀랍지 않다.

4. 제안

4.1 화맥의존적 ‘겠’과 화맥독립적 ‘을 것’

지금까지 두 양태소의 비교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으)ㄹ 것	겠
1.	단순추측/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
2.	사실 추론	순수 추론
3.	단조적	비단조적
4.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 사용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에 제한적 사용
5.	새로운 추정 혹은 이미 추정된 내용	새롭게 추정되는 내용

지금까지의 관찰을 보면, ‘(으)ㄹ 것’은 일반적인 추정에 사용하며, 비교적 제한이 없이 두루 쓰이는 반면, ‘겠’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이든 단순 추정이든 ‘(으)ㄹ 것’이 사용되는 반면에, ‘겠’은 논리적 추론에만 사용된다. 또한, ‘(으)ㄹ 것’은 형이상학적 양태와 인식적 양태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겠’은 인식적 양태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양태소가 보이는 차이는, ‘(으)ㄹ 것’은 단조적이어서 한번 추론을 한 것은 계속 유효하여야 하지만, ‘겠’은 비단조적이어서 한 번 추정된 것이 나중에 번복되어도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겠’은 발화 당시에 추론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으)ㄹ 것’은 이미 추정된 것을 발화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차이들을 뒤에는 두 양태소의 의미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의미적 차이가 왜 그러한 특성상의 차이가 생기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말한 두 양태소에 대한 용법의 차이 중에서 ‘겠’이 발화 시점에서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추정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겠’이 발화상황에서의 일시적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화자가 자신의 내적인 추정 행위(presuming act) 혹은 그 결론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의 내용이 발화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맥(context)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에 ‘(으)ㄴ 것’은 발화상황에서의 추정에도 쓰이고, 이미 전에 일어난 추정을 말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것은 ‘(으)ㄴ 것’에 의한 추정의 내용이 추정의 발화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발화 내용이 발화시점이 결정하는 화맥에 관계없이 발화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명제를 발화함으로써 그 명제가 화맥에 관계없이 현실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과정인 추정행위의 언어적 표현인 ‘겠’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언어로 하는 행위인 일반적인 언어행위(speech act)와 구분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발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서 언어행위와 유사한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언어행위는 일반적으로 보문절에 나타날 때에는 제약이 있다.⁷

언어행위가 보문절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언어행위는 발화상의 화맥에 의존하지만 보문절은 항상 주동사로부터 도출된 화맥에 의존하고 이 도출된 화맥이 보문절의 양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⁸ 다음의 예들은 명제를 형성하는 평서문 이외에 다른 언어행위가 인식과 관련된 명제태도동사(propositional attitude verb)의 보문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34) ?*철수는 영희에게 오라고 믿는다.

(35) ?*철수는 영희에게 언제 오느냐고 믿는다.

즉, 명령문이나 의문문이 명제태도동사의 보문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겠’은 발화시점에 의한 화맥에 의존하므로 명제태도동사의 보문절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으)ㄴ 것’은 독립된 화맥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문절에 나타나는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다음에서 관찰되는 것이다.⁹

⁷ 영어에서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보문절(complement clause)에 나타날 때에는 형태상으로 달라진다. 우리말에서도 언어행위가 보문절에 나타나는 경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 (i) a. 밥을 먹어(라)!
- b. 철수가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 (ii) a. 인생은 연극이다.
- b. 인생은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명령문이 주절에 사용될 때에는 ‘아/어(라)’를 사용하지만, 보문절에 사용될 때에는 ‘으라’가 된다.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지만, (ii)에서 처럼, 평서문의 경우도 보문절에서는 주장(ASSERT)의 언어행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⁸ Schlenker (2003)는 보문절의 해석이 경우에 따라 주절의 화맥과 독립된 화맥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von Stechow (2002)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언어에서 보문절이 주절과 독립된 화맥에 의존하여 해석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⁹ 이 점을 지적해주신 차종렬 선생님께 감사한다.

- (36) a. ??철수는 영희가 일찍 오겠다고 믿는다.
- b. 철수는 영희가 일찍 올 것이라고 믿는다.

첫 문장에서 ‘겠’이 보문절에 오면 이상하지만, 둘째 예에서처럼 ‘(으)ㄹ 것’은 보문절에 나타나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명령이나 의문과 같은 언어행위가 발화상황에 의한 화맥에 의존하듯이 ‘겠’도 발화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맥에 의존하므로 보문절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으)ㄹ 것’은 특정 화맥에 의존하지 않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제태도동사의 보어절에 나타나도 문제가 없다.

‘겠’이 추정행위의 언어적 표현이라서 일반적으로 명제태도동사의 보문절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반면에 ‘겠’이 말을 전달하는 ‘말하다’ 혹은 ‘묻다’ 등의 동사들의 보문절에 쓰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들을 전달동사라고 하자.

- (37) 철수는 영희에게 비가 오겠다고 말했다.
- (38) 철수는 영희에게 비가 오겠냐고 물었다.

이것은 ‘겠’이 화자가 전달동사의 시제가 가리키는 시점에서의 자신의 추정행위를 언어로 표현한 말을 전달하거나 그 시점에서의 청자의 추정 행위를 묻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두 전달동사는 시간적으로 전달동사의 시제가 가리키는 시간으로 이전되지만, 발화에 의한 화맥을 제공하고 ‘겠’은 그 시점에서의 정보상태에서의 추론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 ‘겠’이 사용된 절이 추정의 내용을 명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언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9) 철수는 영희에게 오라고 말했다.
- (40) 철수는 영희에게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이 예들에서 보문절이라 하더라도 전달동사의 보문절은 명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동사의 시제가 가리키는 시점에서의 발화상황 하에서의 언어행위를 가리키며, 전달동사는 이 언어행위를 전하는 것이다. ‘겠’이 전달동사의 보문절에 쓰이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⁰

‘겠’이 발화상의 화맥에 의존한다는 주장의 또 다른 증거는 추론의 주체가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에 따라서 화자가 되었다가 청자가 되었다가 한다는 것이다.

¹⁰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겠’은 언어행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 언어행위 자체는 아니다. 언어학적으로 ‘겠’을 사용하여 평서문을 만들 수도 있고,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다. ‘겠’의 사용과는 독립적으로 평서문과 의문문의 언어행위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겠’ 자체가 문장의 언어행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겠’을 포함하는 절이 다른 절의 종속절로 나타날 수 있다.

(1) 이 문제를 풀겠거든 풀어봐라.

조건문의 선행절에 ‘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겠’이 사용되는 절이 다른 언어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종속절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예들을 볼 때, ‘겠’이 언어행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발화상황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언어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언어행위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1) a. {내가/??네가/??철수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는 너무 어렵겠다.
 b. {내가/네가/철수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는 너무 어려우-ㄴ 것-이다.

이 예들에서 보듯이, ‘겠’이 사용된 평서문에서는 추론할 수 있는 주체가 화자만이 가능하여, 첫째 예가 보여주듯이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경우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때는 ‘겠’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겠’이 화자 자신의 발화상황에서의 추론행위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으)ㄴ 것’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누구의 추론이든 그 내용은 발화상황과 독립된 명제가 되며, 그의 생각을 화자가 전달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의문문의 경우, 추정의 주체는 청자이어야만 한다.

- (42) {?내가/네가/??철수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가 어렵겠냐?

의문문은 청자의 발화상황에서의 추론을 묻는 것이 되는데, 위에서와 같이 청자의 생각에 관련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겠’이 정보상태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평서문의 경우 그 판단근거는 화자의 정보상태가 되겠지만, 의문문의 경우는 문제의 정보상태는 청자의 것이 된다. 따라서 청자만이 추정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¹¹ 추론의 주체가 청자가 되는 경우 청자의 추론의 결과를 묻되 이것 역시 묻는 당시의 정보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에 따라서 추론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화맥에 의존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겠’을 사용하는 추정이 발화시점에서만 한번 행해지므로 반복할 수 없다는 것도 ‘겠’이 발화시점의 화맥에 의존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29)에서 보듯이 ‘겠’에 의한 추론은 발화시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발화시점에서는 다른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보상태가 바뀌지 않았으면, 추론의 필요가 없으므로 추론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겠’은 그 자체가 추론 행위의 표현이고, ‘(으)ㄴ 것’은 단순히 추정의 양태를 나타내는 명제를 형성하며, 화자는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겠’과 ‘(으)ㄴ 것’의 발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¹²

- (43) a. ‘ ϕ -겠다’의 의미: SAY(speaker(c), PRESUME(speaker(c), ϕ))
 b. ‘ ϕ -ㄴ 것이다’의 의미: ASSERT(speaker(c), MOD(ϕ))

¹¹ ‘(으)ㄴ 것’은 의문형이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에 ‘(으)ㄴ 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경우 청자나 제3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화자가 주어가 되는 것은 어색하다.

1. {??내가/네가/철수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가 어려울까?

이것은 자신의 정보상태에서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 묻는 것이 화용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이다.

¹² 여기서 발화의 의미라고 한 것은 두 양태소의 의미의 차이가 언어행위의 차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겠'은 추론의 내용이 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단지 어떤 주체(화자나 청자)의 정보상태에서 논리적으로 ϕ 라고 추론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언어행위를 SAY라고 하였다. 이것은 추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추론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이 현실세계에서 틀릴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있다. '(으)ㄹ 것'은 추론의 내용이 명제를 형성하고, 그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ASSERT)하는 것이다. 위에서 MOD는 가능세계 사이의 접근가능세계에 의하여 정의되는데 MOD(ϕ)는 명제로서 현실세계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혹은 일부의) 세계에서 ϕ 가 참이면 MOD(ϕ)가 참이 된다. 여기서 "접근 가능"이라는 것은 두 가능세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양태가 형이상학적 양태이나 인식적 양태이나에 따라서 접근가능한 세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혹은 일부의 세계라고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으)ㄹ 것'이 필연적인 것을 말할 때에도 쓰이고, 가능성만 있을 때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기용(1978)은 '(으)ㄹ 것'이 강한 추론과 약한 추론에 모두 쓰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4.2 두 양태소의 차이점들

앞에서 주장하듯이, '겠'은 추론 행위를 나타내며 그 문장의 발화는 그 추론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면, '(으)ㄹ 것'은 단순히 추정의 양태로 명제를 형성하고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의미적 차이가 두 양태소의 나머지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번째 차이를 보면, '(으)ㄹ 것'은 사실추론이고 '겠'은 순수추론이라고 하였는데, '(으)ㄹ 것'이 추론의 명제를 형성하고 그 발화는 그 추론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이라 함은 실제 세상이 그 명제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으)ㄹ 것'은 세상에 대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겠'은 추론 행위의 표현이므로 그것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보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참이라고까지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자기의 추론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의 추론이 미래의 정보의 변화나 미래의 행동에 의하여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번째 차이인 비단조성과 연결된다.

앞에서 '(으)ㄹ 것'은 단조적이고, '겠'은 비단조적이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으)ㄹ 것'을 사용하면 해당 추정의 내용이 참이라고 주장(ASSERT)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이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된다. 그러나 '겠'을 사용할 경우 단지 화자 자신의 정보상태에서의 논리적 추론의 결론이므로 정보의 변화에 따라 다른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겠'이 비단조성을 보이는 데에는 이를 야기하는 추론의 근거가 되는 조건문과 총칭문 때문이다. 우선 조건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겠'을 사용하는 경우 논리적인 필연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면서 비단조성을 보이기도 한다. Stalnaker(1975)와 Lewis(1973)에 의하면, 조건문 'If

A, then B'의 의미해석은 선행절 A가 충족되는 가능세계 중에서 가장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능세계의 집합에서 B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행절 A가 충족되는 가능세계 중에서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의 집합이 선행절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능세계의 집합이 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44) If John comes to the party, Mary will come too. But If Bill comes too,
Mary won't.

Mary가 John을 좋아하지만, Bill은 피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John이 파티에 오는 세계 중에서 현실세계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는 모두 Mary가 오지만, John과 함께 Bill도 파티에 오는 세계 중에서 현실세계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는 Mary가 파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조건문이 모두 참이라면 현실세계에 가장 가까운 세계가 두 가지 경우에 전혀 다른 집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조성은 결국 현실세계와 가장 가깝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비단조성의 근원은 총칭문이다. 예를 들어 새는 난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펭귄은 날지 못한다는 것이 새는 난다는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Toto라는 동물이 새라는 것을 알게되면, Toto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좀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Toto가 펭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Toto는 날지 못 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두 양태소의 네 번째 차이로 '(으)ㄹ 것'은 인식적 조건문에 자유롭게 쓰이지만, '겠'은 자유롭게 쓰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것과 '겠'이 추론행위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조건문에서 선행절이 언어행위를 수식하는 경우는 ASSERT의 언어행위 이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45) If you are hungry, ASSERT(there are some sandwiches in the fridge)

이 예에서 선행절은 ASSERT의 언어행위의 조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행위에 대한 조건은 다른 언어행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선행절이 명령이나 의문의 조건이 되는 조건명령문이나 조건의문문의 예를 찾기가 어렵다. '겠'이 조건문의 후행절에 쓰이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의미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46) a. $A \rightarrow \text{PRESUME}(\text{speaker}(c), B)$

b. $\text{PRESUME}(\text{speaker}(c), A \rightarrow B)$

그런데,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46a)에처럼 'A인 경우, B이겠다고 추론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즉, A가 B의 추론에 조건이 된다면, 그 이면에는 'A이면 B'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 ‘A → ASSERT(B)’에서는 A와 B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고, (46b)에서처럼 ‘A이면 B다’라고 추론한다는 의미라면 ‘A이면 B이다’라는 내용이 발화상황에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 있어야 한다.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의 경우 후행절 B가 선행절 A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A이면 B다’는 논리적인 필연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28a)에서의 인식적 양태의 조건문들은 이런 점에서 어색한 문장으로 여겨지며,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면 발화상황에서 ‘A이면 B이다’가 논리적으로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겠’이 논리적 추론을 나타내는데 반해, ‘(으)ㄹ 것’은 논리적 추측 뿐만 아니라 단순 추측의 경우에도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겠’이 추론행위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으므로 항상 자기 자신의 정보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더하여 객관적이든 아니든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추론하는 행위이므로 논리적인 수 밖에 없다. 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여기에 논리성마저 없다면, 그 추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으)ㄹ 것’은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인 근거가 얼마나 있든지 참인 예측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논리적 근거가 없더라도 참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겠’과 ‘(으)ㄹ 것’의 의미적 차이에서 오는 용법상의 차이로 간주될 수 있다.

5. 다른 분석의 설명

앞에서 다른 분석들의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는 일부의 현상들이 존재한다. 일단은 그러한 분석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석에서 주장하는 현상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며, 본 논문의 주장과 가정에 입각하여 그 상반된 주장이 어느 쪽도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 논문의 주장이 설득적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일부의 분석에서 두 양태소의 차이가 추정의 강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기용(1978)은 ‘-겠’이 강한 추측을 타나낸다고 주장하면서 ‘아마’ 등의 부사어의 사용여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 예를 여기에 반복하면 다음과 같다.

(6) a, b 아마 방선생은 총각이{??겠/ㄹ 것이}다.

c 잘 모르지만 잠수교가 물에 잠겼{??겠/을 것이}다.

이것은 ‘-겠’이 논리적인 추론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와 같이 필연성이 없는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의 예문과 구분하여야 한다.

(47) 방선생이 총각일 가능성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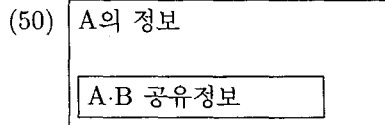
이 문장은 추정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 유무의 문제이므로 여전히 논리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6c)에서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겠’이 화자 본인의 추론이므로 자신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색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겠’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추론의 내용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단조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으)ㄹ 것’이 더 강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겠’과 같이 단순히 추론의 행위의 표시인 것이 아니라 그 추론의 내용이 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한번 주장하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으)ㄹ 것’이 비단조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두 양태소의 차이를 주관과 객관의 대립으로 보는 분석들이 있다. 서정수(1978)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 그는 ‘겠’이 주관적, ‘(으)ㄹ 것’은 객관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겠’이 순전히 화자 자신의 정보상태에 의존하며 세상이 실제로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므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으)ㄹ 것’은 세상이 어떻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추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8) 내 느낌에는 그이가 내일 떠나{겠/?ㄹ 것이}다

(49) 일정표에 따르면 그이가 내일 떠나{?겠/ㄹ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수(1978)의 주장이 맞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관·객관의 구분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추정의 근거가 되는 화자의 정보상태는 항상 타인과의 공유정보상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자 A가 B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A의 정보상태에는 B가 가지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대화가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B와의 공유정보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도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겠’이 반드시 주관적인 추론만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A·B공유정보’에 근거한 추론은 객관적/포괄적 추론이 된다. 고창운(1991)은 ‘-겠’이 공유정보로부터의 추론에만 쓰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위의 도표에서 A·B의 공유정보에 의존하여 추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하였지만, ‘겠’을 사용하는 추론은 독백에서도 가능하며, 따라서 A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창운(1991)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겠’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바를 추론해보는데 잘 쓰이지만 ‘-(으)ㄹ 것’은 그렇지 않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51) 너 참 기쁘{??ㄹ 것/겠}다.

- (52) a. A: 영화도 못 왔겠네.
 B: 그래 영화도 안 왔어.
- b. A: 그러면 영화도 못 왔을 거야.
 B: ??그래 영화도 안 왔어.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추론의 경우 ‘-겠’을 사용하는 것은 ‘-겠’이 순수하게 화자 자신이 자신의 정보상태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와 같은 추론이 되든 다른 추론이 되든 관계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추론하여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적당하다. ‘(으)ㄹ 것’이 그러한 양태소이므로 이 양태소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것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겠’과 ‘(으)ㄹ 것’의 의미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겠’은 화맥에서 결정되는 정보상태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고, 아직은 참이라고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고, ‘(으)ㄹ 것’은 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국어에서 동일한 두 양태소가 화용적인 조건이 맞으면 의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 이미 알려진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올바른 방향에 있다면, 본 연구에서의 구분이 의지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추론과 의지는 다른 점이 있다. 국어에서 의지의 표현은 종속절이 아니면 평서문의 경우 항상 화자만이 주체가 되고 의문문의 경우 청자만이 의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용적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그대로 의지의 용법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양태소의 의지의 용법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Adams, E. W. 1975. *The Logic of Conditionals*. Reidel, Dordrecht.
- Kratzer, 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37-355.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H. J. Eikmeyer and H. Rieser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Berlin, pp. 38-74.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Basil Blackwell, Oxford.
- Schlenker, Phillippe. 2003. A Plea for Monst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29-120.

- Stalnaker, R. 1975.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a* 5, 269-86.
- von Stechow, A. 2002. Feature Deletion under Semantic Binding: Tense, Person and Mood under Verbal Quantifiers. Talk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November 2002. ms. Tübingen.
- 고창운. 1991. '-겠-'과 '-ㄹ 것이-'의 용법. *건국어문학* 제15-16합집, 595-614.
- 김차균. 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173-174.
- 남기심. 1972.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 서정수. 1977. '-겠'에 관하여. *말* 2. 연세대 한국어학당.
- 서정수. 1978. '-을 것'에 관하여. *국어학* 6.
- 안명철. 1983. 현대국어의 양상 연구. *국어연구* 56.
- 이기용. 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 이남순. 1981. '겠'과 '을 것'. *관악어문연구* 6.
- 이남순. 1998. *시제 상 서법*. 월인.
- 이정민. 1973.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양상구조*. 계명대학출판부, 대구. 남기심 (공편) 「현대 국어문법」 번역재수목 (1975).
- 임홍빈. 1980. "{-겠-}과 대상성". *한글* 23.170호, 587-630. 한글학회.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 출판부.

접수 일자: 2005년 10월 31일

게재 결정: 2005년 11월 30일